2023 winter
동국대학교의료원보
vol.37

gil

good in life

HEALTH

HAPPINESS

DUMC

길

Theme

child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이 어려움이 지나면 또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삶이 어찌 시련만 있을 수 있으며,
어찌 즐거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풍만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 중에서
지은이 _ 성전 | 출판사 _ 마음의 숲

발행인 채석래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통권 37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기획 · 편집 · 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gil

CONTENTS

2023
winter
vol.37

HEALTH

05 Intro
온 마음이 필요해요

06 Good Doctor
온 마음으로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10 Medical Theme 1
우리 아이,
신생아 황달의 원인과 치료

12 Medical Theme 2
우리 아이,
머리 모양이
비뚤어진 것 같아요

14 Medical Theme 3
우리 아이,
근시,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16 Medical Theme 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부모의 역할

18 Zoom in
이른둥이와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

22 Korean Medicine
아이가 허약하다고요?
한방(韓方)에 방법이 있습니다

HAPPINESS

24 Essay
절로 돌아가는 길

26 Travel
누구와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도시,
스페인, 세고비아

30 Letter
나의 작은 행복,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32 Book
내 삶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다미주신경 이론

DUMC

34 Focus 1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모바일앱

36 Focus 2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최첨단 방사선 암치료기기
바이탈빔 도입

38 Team
입원 문의에서 입원 생활까지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입원전담팀

40 News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44 Together
나눔

47 Schedule
진료 일정 안내

PART 1
HEALTH

Medical Theme
어린이

온 마을이 필요해요

온 마음으로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신생아 황달의 원인과 치료

우리 아이,
머리 모양이
비뚤어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근시,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부모의 역할

이른둥이와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

아이가 허약하다고요?
한방(韓方)에 방법이 있습니다

온 마을이 필요해요

“아구 이뻐라” “사랑해”

21개월 딸을 병원 소아중환자실에 두고 피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엄마는 딸을 향한
의료진들의 말에 그만 오열을 터트리고 말았답니다.
우연히 켜진 베이비캠(아기 촬영 카메라)에 포착된
소아중환자실 모습은 그동안의 걱정과 조바심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지요.

코로나로 인해 면회조차 되지 않는 소아중환자실에
딸을 홀로 두고 온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가끔 영상으로나마 딸을 보기 위해 의료진에 건넨
스마트폰 베이비 캠이 어쩌다 켜진 거였지요.
아이 곁에서 예쁘다 사랑한다 수십 번 말해주는
의료진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며 엄마는 그날 밤
참 많이도 울었다네요.
엄마에겐 더없이 큰 위로가 된 밤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뵌 소아중환자실 의료진이 그러더군요.
여리디여린 몸으로 삶과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드는 환아를 돌보다 보면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수차례 맞닥뜨리며 때론 힘이 쭉 빠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기적 같은 상황이 오곤 한다지요.
그러면 ‘세상엔 포기해야 할 생명은 없다’란
생각을 다시 곱씹곤 한답니다.

“둘째 아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널 지켜줄게”

마을 곳곳에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답니다.
2년 만에 마을에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주민들은 마을잔치도 열었다네요.
아이 부모에겐 이보다 더 든든한 응원군이 없을 겁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 달려갈 이웃 할머니와
온 동네 뛰어다니는 아이가 다치지 않게 지켜봐 주는
이웃들을 믿고 일상을 살아가면 될 테니까요.

출산율 0.78명

미국의 한 석학이 "한국은 망했다"고 할 만하지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온갖 처방을 내놓습니다만
뾰족한 해결책은 못 되는 듯하네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고픈 마을.
소중한 생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이를 위한 깊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온 마음으로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강은경 교수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다.
출산율이 낮아져 빨간불이 켜진 대한민국의 미래, 게다가 아이들을 치료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이다.
소아 진료를 위해 ‘오픈런(문이 열자마자 달려가는 현상)’까지 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온마음으로 아이들을 진료하는 엄마 같은 의사 선생님이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강은경 교수다.

• • •

‘강은경’ 이름 석자가 새겨진 이름표에 뽀로로, 아기상어, 핑크퐁, 뿡뿡이, 아기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가 앞뒤로 잔뜩 붙어있는 의사. 이름표에 소아 환자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담겼다.

인터뷰 도중 강 교수는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초등학교 1학년인 환자가 서툰 글씨로 쓴 편지에는 ‘강은경 선생님 동국대병원 떠나지 말아요. 저를 진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는 요즘 상황을 초등아이도 아는가보다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들의 웃음은 나의 행복

소아과 의사인 게 너무 좋다는 강 교수.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강 교수의 눈빛은 행복하게 빛났다.

"아이들이 웃어주면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은 아플 때도 종일 우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밝게 웃어줘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울면 청진기로 소리가 들리지 않아 진찰이 어렵다. 힘줘서 앙앙 울면 배에 힘이 들어가서 단단해져 촉진도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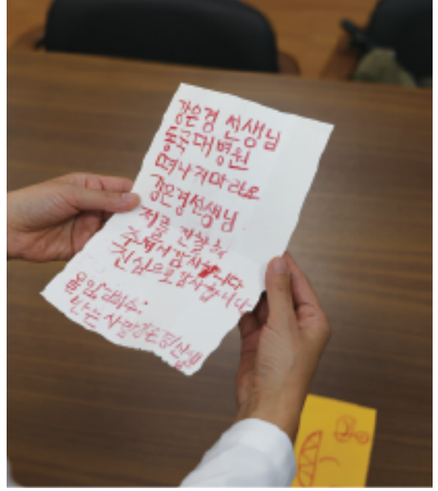
강 교수는 이름표에 붙은 스티커를 가리키며 "이거 봐라, 아빠 상어가 어딨지? 뽀로로가 뭐하지?" 하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래도 울면 억지로 달래려고 애쓰지 않는다. 앙~하고 울 때 입안을 얼른 보고, 보호자에게 아기를 안고 진료실 문밖으로 살짝 나가시라고 한다. 아이가 '이제 나가나보다' 하고 안심할 때 등 뒤에서 살짝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다. 23년 내공에서 나오는 지혜다.

강은경 교수의 주요 진료분야는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중환자 관리다. 소아청소년과는 신생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통상 청소년은 만 18세까지로 보지만 동국대학교병원은 15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만성질환인 비염은 19세, 20세가 되어도 소아청소년과로 찾아오기도 한다. 최근에는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은 길어지고 농도는 강해져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예전과 달리 3, 4세도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늘었다고 한다.

강은경 교수는 "호흡기 질환은 주로 환절기나 겨울에 환자가 많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유행을 타고 1년 내내 유지되고 있어요. 보통 여름에는 주춤한 편인데 올해는 독감이 지속되고 유행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통 세균성 폐렴이 늘어나면 호흡기 바이러스는 줄어드는 패턴인데 올해는 아데노바이러스로 열 환자가 늘고 있어요."라며 어린아이들의 개인 위생과 예방을 일상화하기를 권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의사

입원 아이들의 엄마는 아파하는 아이를 안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한다. 강 교수는 "예전에는 아이들만 보였는데 이제 엄마들도 보여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라며 사람좋은 미소를 짓는다.
그래서 보호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열난다고 무조건 응급실로 달려 가거나 해열제 먹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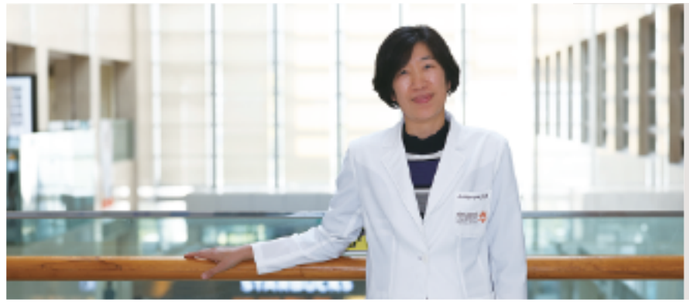
마세요. 열은 아이 몸속에서 병균과 싸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3~4일, 아데노바이러스는 5~6일 열나고 가라앉아요. 아이가 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만 먹여도 돼요. 자는 애 깨워서 먹이지는 마세요. 해열제는 꼭 필요할 때만 먹이세요."라고 당부했다. 간혹 빈속에 해열제를 많이 먹여서 급성위궤양으로 피 토하며 응급실로 오는 아이들도 있고 열이 떨어진 뒤 저체온으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반복되는 복통, 두통, 과호흡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내원할 때는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고, 아픈 곳이 돌아다니는 특징이 있지요. 물어보면 친구, 부모, 학교, 학원, 형제와 비교 등 그 아이만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증상에 대한 약을 쓰기도 하고, 그것도 도움이 안되면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기 위한 호흡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강은경 교수는 소아 청소년의 수면호흡장애에 대한 진료도 하고 있다.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폐쇄수면무호흡'을 연구하고 논문도 발표했다.

"어른은 잠을 못 자면 졸지만 아이들은 산만해져요. 산만해지고 인지기능이 떨어지기도 해서 ADHD로 오해받고 약을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면문제가 해결되어야 ADHD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수면의 질만 높여줘도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한 강 교수의 연구는 끝이 없다.

강 교수는 몇 해 전 지하철에서 사레가 심하게 들린 후 기도가 폐쇄되는 듯한 호흡곤란이 발생해 주변 사람에게 등을 쳐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일을 몇 차례 겪었다. 의사지만 순간 너무나 당황했고, 숨이 막히는 공포감을 경험해보니 "아, 이래서 아이들이 기도가 부었을 때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자신의 호흡곤란 경험으로 아픈 아이들의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니 천상 소아청소년과 의사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강은경 교수는 오랫동안 아이들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강 은 경** 교수

전문진료분야
알레르기, 호흡기, 중환자관리,
천식·알레르기클리닉

경력
·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및 박사
·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서울대학교병원 전임의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소아 중환자실)

글 이명혜 기자

우리 아이

신생아 황달의 원인과 치료

신생아 황달(Neonatal jaundice)

진료실에서 생후 첫 4주 이내의 아기들에게서 가장 흔히 접하는 질환 중 하나로 신생아 황달을 들 수 있습니다. 만삭아의 60%, 미숙아의 80% 정도에서 나타나는 신생아기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고 대개는 큰 문제 없이 회복되지만 병적 황달이나 심한 황달의 경우 핵황달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므로 아기가 황달이 있을 때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생기전

신생아 황달의 기전은 성인과는 다릅니다. 신생아 황달의 기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간에서 담즙의 배출을 담당하는 효소가 신생아 때에는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으로, 효소 기능이 성숙되기까지는 대개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외에도 담즙이 장으로 배출된 이후에 장간순환이 잘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적혈구의 용혈이 심한 경우에도 황달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황달은 크게 포합 빌리루빈 증가에 의한 황달과 불포합 빌리루빈 증가에 의한 황달로 나뉘는데 신생아들은 불포합 빌리루빈 증가에 의한 황달이 대부분입니다. 불포합 빌리루빈 증가에 의한 황달은 대부분 생리적인 반응에 의해 생기게 되고 대개 출생 5일까지는 자연스럽게 황달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생리적 황달은 출생 4-5일째 가장 심했다가 1주일 이내로 좋아지며 백인에서보다 동양인에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구분하여 포합 빌리루빈 증가에 의한 황달도 있는데 혈액 속의 적혈구가 수명을 다해 파괴되면서 생기는 빌리루빈이 담도를 통해 배출이 잘되지 않는 경우 생기게 되고, 원인으로는 간염이나 담도계 이상, 장폐색, 장기간 총정맥영양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종류

조기 모유수유 황달(early breast milk jaundice)은 대개 수유 양이 적어서 생기고 생후 첫 1주일 이내에 잘 생깁니다. 대부분 수유량이 적어서 생기는 것이 원인이므로 수유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이와 구별되는 것이 모유 황달(breast milk jaundice)입니다. 모유 황달은 정점을 찍는 시기가 생후 2-3주이고 길게는 2-3개월까지도 지속되지만 대개는 큰 문제 없이 호전됩니다. 이때에는 모유를 3일 정도 끊어보는 것이 진단 및 치료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생기는 용혈에 의한 황달의 경우, 황달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응급질환에 속하고 되도록 빨리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장 흔히 ABO, Rh 혈액형 차이가 원인이 됩니다. 산모가 O형, 아기가 O형을 제외한 다른 혈액형일 때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산모의 혈액형이 Rh(-)인 경우라면 첫 번째 아기를 임신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 번째 임신했을 때 항체가 아기한테 넘어가면서 용혈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이 경우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황달 수치가 빨리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발바닥 뒤꿈치에 바늘을 찔러 나오는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 확진하게 되는데 간이 검사와는 2-3 정도의 오차가 있으므로 간이검사상 수치가 높다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치료

광선 치료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고 아기에게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간단한 치료법이면서도 신생아 황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광선치료는 피부에 특정 파장의 빛을 쬐어 빌리루빈을 배설이 용이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원리입니다.

광선 치료를 받으려면 대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고 입원 기간은 약 5일 전후입니다. 우리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는 사실에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치료가 매우 간단하고 입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치료 반응이 좋다면 예후는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선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황달은 교환수혈 치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황달이 잘 치료되지 않으면 핵황달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핵황달(Kernicterus)은 아기의 몸이 뻣뻣해지고 목이 뒤로 젖혀진다든지, 날카로운 양상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이 주 증상입니다. 뇌성마비와 같은 신경학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는데 빠르면 6개월에서 돌 전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적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황달의 원인은 의사의 진료 없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황달이 의심된다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현수 교수
전문진료분야
신생아, 미숙아,
각종 감염 및 호흡기 질환

우리 아이

머리 모양이 비뚤어진 것 같아요

사두증(Plagiocephaly, 측두증, 단두증)

뒤통수의 모양이 얼마나 변형이 왔는지에 따라서 사두증과 단두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두증이란 아기 머리뼈가 일정하지 않고 방향에 따라 튀어나온 각도가 달라 비대칭적으로 변형된 질환입니다. 단두증은 두상 한쪽이 납작하거나 뒤통수가 평평하거나 등의 한쪽 면이 납작한 증상을 말합니다.

사두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머리뼈 봉합선이 조기에 유합되어 발생하는 두개골유합증(craniosynostosis)과 다른 하나는 외부의 힘에 의해 머리 모양이 변하여 발생하는 자세성사두증(deformational plagiocephaly)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

자세에 의한 머리 모양 변형은 외형적으로만 문제가 있을 뿐 신체 발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심한 경우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두상의 비대칭이 심해져 얼굴 골격 성장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귀나 눈의 정렬 불량 등의 안면 비대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서 사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의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신체검사, 머리 모양 관찰, 소아 병력 검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진단을 확인하고 상태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엑스레이나 CT와 같은 추가 진단 영상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사두증에 대한 치료 방법은 근본 원인, 상태의 중증도, 소아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물리 치료

경미한 사경 등으로 인한 자세성 사두증이 있는 영아의 경우 물리 치료 운동이 머리 움직임을 촉진하고 목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목적은 아기가 자세를 바꾸도록 격려하고 머리의 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피하는 것입니다.

헬멧 요법

중등도에서 중증의 사두증의 경우 두개골 교정용 보조기(헬멧) 요법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헬멧은 튀어나온 부분에 가벼운 압력을 가하여 두개골의 모양을 부드럽게 바꾸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헬멧 요법은 6-9개월에 가장 효과적이며, 12개월까지도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18개월 이상 경과하면 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헬멧은 이미 1979년에 Clarren 등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술된 후에 1991년과 1993년에는 두개골 기형에 대한 의사의 주관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한 치료로서 FDA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헬멧 요법은 공간을 주어서 머리를 자라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며 업체에 따라서 재질은 다르나, 대부분 치료하는 의사가 아기의 머리 치수를 재어서 보내면 회사에서 머리의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서 교정하는 방식으로 헬멧과 같이 생긴 보조기를 제작하여 의사에게 보내면 환아에게 착용시키고 의사가 2-4주 간격으로 환아를 추적하게 됩니다.

착용하고 대개 1~2개월 정도 경과하면 머리 크기가 커져서 더 이상 헬멧이 맞지 않게 되는데, 이때는 다시 더 큰 헬멧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기존 헬멧의 내부 쿠션 두께를 줄여서 크기를 맞추어 주어서 계속 착용시키며 치료 시간은 대개 2~6개월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머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머리 피부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피부를 관찰하고 피부를 쉬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동안은 씌우지 않습니다. (1시간을 제외한 23시간 동안 씌웁니다.)

수술적 치료

드물게 두개골유합증으로 인한 사두증의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융합된 봉합선을 해제하고 두개골을 재형성하여 보다 일반적인 머리 모양을 복원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예방

사두증의 모든 경우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 아기가 깨어 있을 때 부모의 관리하에 터미타임(tummy time, 엎드려 있게 하기)을 가져 뒤통수에 가해지는 장기간의 압력을 줄이세요.
- 잠자는 동안 아기의 머리 위치를 번갈아 가며 한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 카시트, 그네 또는 머리 움직임을 제한하는 기구를 아이에게 장시간 사용하지 마세요.
- 수면 중에 적절한 머리 위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지베개 또는 머리 양옆에 말아 올린 담요를 사용하세요.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재활의학과
김하워드 교수
전문진료분야
뇌졸중, 척추손상, 전문재활,
족부클리닉(척추측만증), 근골격계통증,
노인의학, 재생의학

우리 아이

근시,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근시는 안구가 정상 길이보다 길어서 망막에 정확히 초점을 맺지 못하고 초점이 앞에 맺혀 먼 곳이 잘 안보이고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는 대부분 원시로 태어나지만, 유년기와 초기성인기를 거치면서 성장하게 되면 눈도 함께 성장하게 되고, 이때 과도하게 눈 길이가 길어지면 근시가 생기게 됩니다. 근시는 부모의 근시(유전적 요인)와 더불어 과도한 근거리 작업이나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내에서 근거리 작업(스마트폰의 사용 및 컴퓨터 게임, TV 시청 등)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근시의 발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멀리 볼 때 눈을 찡그리고 보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 자세 이상이 생기거나 자주 두통을 호소한다면 근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에게서는 눈의 조절력이 강하여 가성근시가 나타날 수 있어 정밀한 평가를 위해 조절마비굴절 검사를 시행하여 정밀하게 근시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기 초기에 근시가 일찍 발생하거나 부모가 고도근시인 경우, 고도근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도근시는 근시가 -6.00디옵터 이상이거나 눈의 길이가 26.5mm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망막박리, 녹내장 등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안과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근시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몇 가지 방법은 이미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중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적 요인의 영향

근시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근시의 발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가 더 많은 실외 활동을 하는 경우 근시의 발병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은 햇빛 아래에서 활동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장비 사용 및 근거리 작업을 줄이고 최소 30-40cm 이상은 떨어져서 보는 것이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조명이나 밤에 약한 불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학적 치료

안경과 렌즈를 사용한 광학적 치료도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초점 소프트 콘택트렌즈는 다양한 초점 영역을 가지고 있어 주변부 시력을 흐릿하게 만들지만 근시의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각막을 눌러 바뀐 각막의 모양으로 낮 동안 정상시력을 만들어 주는 드림 렌즈의 경우에도 근시 진행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콘택트렌즈의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어 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올바르게 착용하고, 세척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MS(Defocus Incorporated Multiple Segments)의 특수 안경렌즈로 근시 진행을 억제시켜 줄 수 있다는 연구 또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아트로핀 안약은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5-18세 어린이에게 사용됩니다. 아트로핀은 저농도에서부터 고농도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농도가 높아질수록 근시 억제 효과가 세지지만 부작용의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어 세밀한 안과 검진 및 의사의 판단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농도의 아트로핀은 부작용이 적으며, 적절하게 관리하면 어린이의 안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근시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몇 가지 방법은 이미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은 근시 예방 및 진행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행되는 근시가 있는 어린이는 청소년기 후기(16~18세)까지는 6개월 간격으로 근시 진행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시 안정화의 시기는 환자마다 다르며, 어른이 되어도 근시가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안과
이경민 교수
전문진료분야
성형안과
(눈꺼풀, 눈물길, 안와),
사시, 소아안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진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부모의 역할**

초등학생 동수는 교실에서 자기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몸을 비틀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에게 장난을 쳐서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돌아다니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학교 성적도 기복이 심하고, 알림장을 기록하지 않거나 숙제를 해오지도 않고, 위험한 장난이나 행동을 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힘들다고 하시며 학부모 상담을 요청하여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면담과 설문지, 심리검사, 의학적 검사를 통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수는 약물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방문을 통해 상담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게임 등에서는 집중력을 보이기도 하여, ADHD 아동이 보이는 주의력 장애, 과잉행동, 충동성,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지시한 작업을 마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ADHD 아동을 위해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1. 아동을 이해하고 지원하십시오.

ADHD는 뇌 기능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증상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의 성공적인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2. 학교나 선생님과 협력자가 되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사와 협력하여 자녀의 학습과 행동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규칙과 일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ADHD 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따르도록 도와주고, 일정한 일과 패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4. 아동의 자기 통제 능력을 강화하도록 도와주십시오.

ADHD 아동은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5. ADHD 아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며, 자녀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ADHD 아동은 낮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7. ADHD 아동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녀가 치료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 아동은 부모나 선생님, 친구들에게 갈등과 고민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부모의 역할에 따라 아동이 가진 능력이나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ADHD 아동이 돌봄을 잘 받아서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라는 데 부모가 가장 큰 후원자이자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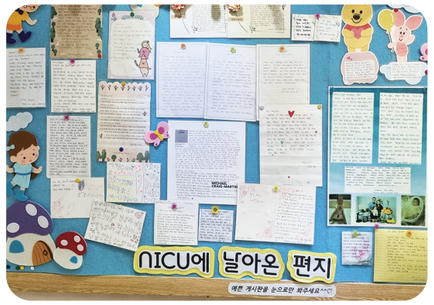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광헌 교수
전문진료분야
우울증,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노인정신의학,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NICU

이른둥이와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

이곳의 간호사는 이른둥이에게는 엄마와 같다.
엄마 뱃속에서 40주를 채우고 자라야 할 아기들이 일찍 세상에 나와 인큐베이터 안에서 간호사들의 돌봄을 받으며 쑥쑥 자란다.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에 들어서면 벽면을 가득 채운 편지와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간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로 시작되는 편지들, '동국 NICU 사랑합니다', 서툰 글씨로 쓴 외국인 산모의 편지까지. 꾹꾹 눌러쓴 손 편지에는 이른둥이의 부모가 되어 혼란스럽고 막막했던 마음, 아기를 돌보고 키워준 간호사와 의사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 담겼다. 한쪽 벽면에는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밝게 웃는 아이들과 의료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있다. 인력 부족, 수면 부족으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편지와 사진은 에너지를 채워주는 비타민이다.



최신 장비 갖춘 집중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에 들어서면 널찍한 공간에 거리를 두고 인큐베이터와 모니터, 산소호흡기 등 생존을 위한 장비가 놓여 있다. 단독전원(IPS)과 무정전시스템(UPS)에 자가발전시스템까지 아기들을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자연 채광과 개별 조명시스템도 구축했다. 저산소성 뇌손상 치료장비, 최첨단 인공환기기와 비침습 인공호흡기, 최신식 인큐베이터와 실시간 활력징후 파악을 위한 중앙모니터 시스템 등 최신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40주가 만삭) 미만에 낳은 아기를 말한다. 2.5 kg 이하를 저체중 출생아, 1.5 kg 미만을 극소 저체중 출생아, 1 kg 미만 아기를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라고 한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이른둥이는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다. 생존율은 출생 시의 체중과 엄마 뱃속에서 보낸 기간에 정비례하며 미숙아는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국내 의료계는 현재 이른둥이가 최소 23주 이상, 500 g 이상이어야 생존 가능하다고 본다. 병원마다 치료 기준을 23주 이상으로 삼고 있다.

24시간 전문인력 상주

이곳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이른둥이를 포함한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 치료하는 곳이다. 2014년 지역센터로 지정받아 정부의 지원으로 시설을 확충했다. 신생아 전문의(교수) 2명, 간호사 24명(신생아실 포함), 전담간호사 1명, 센터 운영 행정업무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아기들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병원인 만큼 고위험 신생아의 심장 · 신경 · 소화기 및 내분비 질환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그 외에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영상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와 유기적인 협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맡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인 의사들의 소아과 기피 현상이 이곳에서도 느껴지는데 신생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두 명의 교수가 24시간 대기하며 진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환자 대비 간호사 비율이 중요하다. 세상에 너무 일찍 나와서 모든 장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이른둥이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어서 숙련된 전문가들이 항상 지켜봐야 해서 간호사 1명이 많은 아기를 돌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환자 1인당 간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아기에 대한 처치나 간호에 부족함이 없다.

김도현 센터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신생아는 불안정하고 시시각각 변화해서 늘 옆에서 지켜보고 바로 치료해야 합니다. 아기가 워낙 작고 약해서 검사와 처치가 쉽지 않아요. 치료도 어렵고 진단도 어려워요. 그래서 고도의 숙련된 인력이 24시간 지켜야만 해요. 의사, 간호사 모두 이 분야만 트레이닝 받은 인력이 필요한 곳이죠"라고 말한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기들을 돌보는 의료진

이곳의 간호사는 이른둥이에게는 엄마와 같다. 엄마 뱃속에서 40주를 채우고 자라야 할 아기들이 일찍 세상에 나와 인큐베이터 안에서 간호사들의 돌봄을 받으며 쑥쑥 자란다. 28주, 870 g으로 태어나 이곳에 온 가을이(가명)도 최근 100일을 맞아 간호사들이 백일 축하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 센터장은 "엄마 뱃속에서 커야할 아이를 밖에서 키운다고 생각하면 매우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일"이라며 "생존율은 높이고 합병증은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기가 퇴원 후 발달과 성장이 잘 이뤄져 장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줘야 결과가 좋다고 본다.

"의사들이 놓치는 작은 것들이 아이들의 예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장애, 불편, 경제적 고통, 부모의 고통 등. 의사의 순간의 결정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니까요. 아이와 부모의 고통, 나아가 국가적 부담과 손실. 그래서 의사로서 부담감이 큽니다."

아기와 가족의 평생이 걸린 일이라 생각하면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르지만 치료 잘 받고 엄마 품에 안겨 나가는 아기를 보며 보람을 느낀다. 그것이 의료진을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하는 원동력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김 센터장은 "아기들이 밤에 주로 많이 태어나요. 당직도 많이 서고 집에 있다가도 호출하면 달려옵니다.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전문의 2명과 전공의 3명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기 때문에 1주일에 80시간 일하기도 해요."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털어놓았다.

아기의 심장을 수술하는 소아흉부외과 전문의는 전국에 15명 안팎인 현실이다. 출생률이 낮아지니 태어나는 아기를 잘 챙겨야 하는데 소아과 기피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국가적 대책이 시급해 보였다. 더불어 가녀린 생명을 지켜주려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글 이명혜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전문 의료진

- 고위험 신생아의 심장, 신경, 소화기 및 내분비 질환 전문 소아청소년과 교수 진료
-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 구축
-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신생아중환자실에 상주

집중 치료센터

- 이른둥이를 포함한 고위험 신생아들의 집중 치료
- 감염성 질환 또는 면역력 저하 신생아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격리실 보유
- 공기 감염을 예방을 위한 헤파 필터 환기 시스템 적용

최첨단 장비

- 다수의 인큐베이터 , 비강지속적 양압환기기, 인공 호흡기 등 신생아 및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 보유
- 언제 어디서든 고위험 신생아들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중앙모니터 시스템 보유

한방
韓方

아이가 허약하다고요?

한방(韓方)에 방법이 있습니다!!

한방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부모들이 진료실에 들어와 앉자마자 아이가 너무 안 먹는다며 또는 자주 아프다며 한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허약아라고 하면 이런 아이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오장육부는 태어날 때 기능적으로 부족해 성장을 통하여 완성되는데 개개인의 유전적, 환경적 영향으로 오장육부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기능이 떨어진 상태 즉, 허약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소아의 특징을 이해하여 아이들이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를 건아법(健兒法. 아이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건아법에서는 세부적으로 인체에 중요한 장기인 오장(五臟. 肝心脾肺腎 즉, 간, 심장, 지라, 폐, 신장을 말함)의 기능과 관련하여 각각의 장부의 기능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오계허약아(五系虛弱兒. 부족한 오장의 기능에 따른 허약아)라 분류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계허약아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비계허약아는 허약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소화기능이 떨어져 식욕부진과 편식이 있고, 잦은 울렁거림, 구역질, 구토, 빈번한 복통(특히 배꼽 주위)을 호소하고 잘 체하며 변비나 설사와 같은 대변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개 안색이 황백색이며 윤기가 없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무기력하고, 체형이 말라서 부모들은 대개 체중이 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폐계허약아는 비계허약아 다음으로 많은 허약증으로, 잦은 감기에 쉽게 열이 나며 외부의 기후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중이염,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인후염, 편도선염, 폐렴, 기관지 천식, 축농증이 있었거나 현재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채기와 맑은 콧물을 자주 흘리고 코가 막히는 알레르기 비염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심계허약아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이 고르지 못하며, 신경이 예민하여 자주 놀라고, 무서움을 잘 타고, 자다가 꿈을 많이 꾸거나 수시로 자주 깨고, 간혹 몽유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매사에 신경질을 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계허약아는 피로를 잘 느끼고 특히 계절을 심하게 타는데, 평소 자주 어지러워하며 코피가 자주 나고 몸에 쥐가 잘 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식은땀을 많이 흘리며 손발톱의 발육상태가 나쁘고, 급격히 시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신계허약아는 소변의 이상, 생식기의 발육부전과 함께 내분비 이상으로 인한 성장장애를 보이는데, 이런 아이들은 골격이 작고 안색이 창백하고 무기력하며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위가 자주 붓고 수족냉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의학에서 신장의 기능이 신장 및 방광의 기질적 장애와 함께 생식 및 내분비 기능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허약아의 치료에 보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의사가 진료를 통해 아이의 오장육부의 허약 정도를 판단하고 부족한 장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약재를 선택하여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아보약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진단, 경옥고와 같은 보양제와 달리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체격과 영양상태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장육부의 기능적 부조화나 나쁜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에 따른 비만, 알레르기 질환, 불안증 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허약아를 치료하기 위한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현대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들의 역할은 우리의 아이들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건강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아 시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마련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허약증으로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허약한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이 한방에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민상연 교수
전문진료분야
허약아, 성장장애, 성조숙, 학습장애, 감기, 천식, 비염, 복통, 변비, 설사, 알레르기, 두통

염화미소
拈華微笑
성전스님

절로 돌아가는 길

절로 돌아가기 위해 아침 첫 비행기를 탔다. 김포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사천공항에 8시쯤에 도착했다. 사천공항 주변 주차장에 세워둔 봉고차를 끌고 남해에 자리한 절을 향해 출발했다. 사천 시내를 벗어나자 바다가 펼쳐졌다. 아침 햇살을 가득 머금은 바다. 바다가 온통 은처럼 빛났다. 햇살을 머금은 아침 바다를 만날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기쁨에 설렌다. 이 한량없는 아침 바다의 가치는 느끼는 사람의 것이다.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아침 바다 앞에서 그냥 초라한 이방인일 뿐이다. 나는 언제나 느낌의 부자다. 소유한 것은 적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자신의 감성이 때로 고맙기만 하다. 느낌은 소유의 빈곤을 씻어주고 초라한 존재의 가치를 아름답게 빛나게 해준다. 아침 바다가 내게 일깨워 준 느낌의 교훈이다.

절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바다가 내 삶의 풍경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절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가 없었다면 그 길은 얼마나 단조로운 길이었을까. 차창을 스치며 지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바다의 끝없는 넓이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작은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8년 동안 바다는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 내 안을 자꾸만 넓혀 주었던 것이다. 바다는 내 안의 이기와 집착을 몰아내고 푸르고 넓은 물결로 일렁이며 좁은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 바다가 나를 씻어주는 그 길을 돌아 절로 돌아가면 부처님의 미소가 더욱 빛나 보이고는 했다. 아마도 내 마음이 그만큼 맑아져 있기 때문일 터이다.

8년 전 남해에 자리한 용문사에 처음 올 때도 바다를 만났다. 그때 바다는 화사한 벚꽃을 동무들처럼 곁에 두고 있었다. 남해대교를 지나는 길에 바람에 날리던 그 꽃잎들. 그 꽃잎의 낙화를 안고 있는 바다를 보며 나는 눈을 감았다. 너무 아름다운 풍경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봐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풍경은 오히려 눈보다 가슴 속에서 더욱 멋지게 그려지는 것만 같았다. 남해대교를 지나 바닷가 마을에 차를 세우고 나는 바다를 향해 흩날리는 벚꽃 잎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길을 거느린 절이 내가 앞으로 살게 될 절이라는 사실이 행복으로 다가왔다.

나는 사람들에게 가끔 '절'에 대해서 말한다. 절이란 부처님이 자리한 도량만이 아니라 절을 찾아 가는 그 길까지도 포함한다고. 나에게 절을 향해 난 길은 곧 절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절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 출발부터 순례자의 마음을 지녀야만 한다고 나는 말하곤 한다. 용문사가 남해의 어디에 자리한 줄도 모르면서도 나는 가는 길의 아름다움만으로도 그 절을 아름답게 느낄 수가 있었다.

절로 가는 길이 아름다워야 절이 아름답듯 우리들 인생 역시 과정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다. 결과만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살아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들 인생의 가장 명확한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것은 매 순간 적용되는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다. 성급하게 결과를 탐하기보다는 꾸준하게 과정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진정 행복한 사람들은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많은 것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과정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절보다 절을 찾아가는 길을 더 좋아한다. 웅장하고 큰절보다는 길고 아름다운 길을 거느리고 있는 작은 절을 무척 좋아한다. 절을 향해 난 길에 대한 사랑이 내게는 있다. 절을 향해 난 길을 걷다보면 바위 같던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새털 같이 가벼운 마음의 길, 나는 절로 돌아가는 길을 이렇게 명명하고만 싶다.

우리 모두는 얼마나 행복한 길을 걷고 있을까. 나는 절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행복하다. 이 길 위에서 나는 생각한다. 인생은 언제나 과정이고 우리들 고통의 원인은 사건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우리들의 방식에 있다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내게는 있다.

나는 세상사람 모두가 자신의 길 위에서 행복하기를 기도한다. 내게 절로 돌아가는 길은 행복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절로 돌아가는 길, 아침 바다가 세상을 향해 온통 행복을 뿌릴 듯이 빛나고 있다.

글 **성전스님**

現 천안 천흥사 한주.
현재, 불교방송(BBS)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행복하게 미소 짓는 법〉, 〈빈 손〉, 〈비움, 아름다움, 채움〉,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 〈때로 반짝이고 때로 쓸쓸한〉 등이 있다.

여행을 그리다

누구와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도시,

스페인, **세고비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광장

그 길의 끝에

#1

장거리 운전을 고려해 새벽에 출발했지만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마드리드를 거쳐 세고비아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4시 전에는 호텔 체크인을 마쳐야 해가 지기 전에 시내로 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았다.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예상했던 시간에 도착했다.

도시 외곽에 있는 호텔은 아담했지만 숙소 옆으로 길게 흐르는 프리오강이 시원하고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긴 운전과 내일 일정을 고려해 저녁 10시에는 돌아와야 할 것 같았다.

수도교와 세고비아 구시가지가 멀리 보이는 골목길에 주차를 했다. 유럽 자동차 여행에서 주차는 항상 골칫거리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정식 주차장을 찾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한 선택이지만 여행이 길어지면 주차비의 지출이 높아지면서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관광지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무료 주차장을 찾게 된다. 그러다 '에이, 별일 없겠지?'하는 간사한 마음은 관광지와 가까운 골목에 주차하는 일을 만들고 결국 벌금 딱지를 떼이거나 견인을 경험하면 다시 정식 유료주차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벌금도 내보고, 견인도 당해 봤지만 주차장 앞에 세워진 살인적인 주차비용을 보고나면 무료 주차의 유혹이 다시금 살아난다. 오늘 저녁도 골목가에 길게 늘어선 주차 행렬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오늘은 행운이 가득한 날이길 무작정 바라면서 말이다.

#2

수도교 광장의 레스토랑 노천에 자리를 잡았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노을도 사라질 때쯤 광장 주변의 가로등이 켜지면 저녁식사 손님을 받는 카페와 음식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광장에 길게 펼쳐진 테이블에 앉아 스페인 카스티야 지방의 향토 음식인 '코치니요 아사도(새끼돼지 통구이 요리)'를 주문했다. 음식에 민감하지 않아 맛집을 일부러 찾아다니지는 않지만 여행에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요리를 먹을 기회가 있다면 빠뜨리진 않으려 한다. 다른 여행자의 블로그에서 봤던 사진에는 어린 돼지를 통째로 구워 나온 모습이 다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었다. 요리는 사진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고, 종업원이 접시로 고기를 해체해 주고 사용한 접시를 깨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그대로였다.

하루의 끝에서

와인을 곁들인 저녁식사 시간은 요리보다 그날의 여행을 마치고 일행들과 나누는 여행이야기로 항상 즐겁다. 특히 각자 찍은 사진을 돌려볼 때는 감탄과 공감, 배움의 시간이 만들어지고 여행이 깊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공간을 돌아보면서도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늘 신기하고 새롭다.

세고비아의 저녁 풍경은 너무 아름다워 여행의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유난히도 아쉬웠다. 와인과 가로등 빛으로 발그레하게 달아오른 일행들과 마지막 잔을 부딪칠 때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가 그날의 저녁을 두고두고 기억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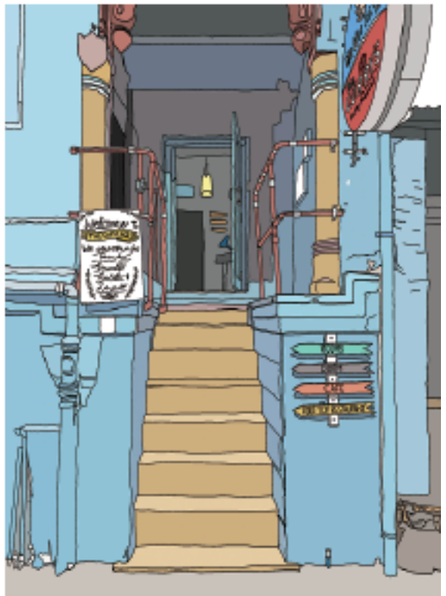
"세고비아 광장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위험해. 누구와도 사랑에 빠질 것만 같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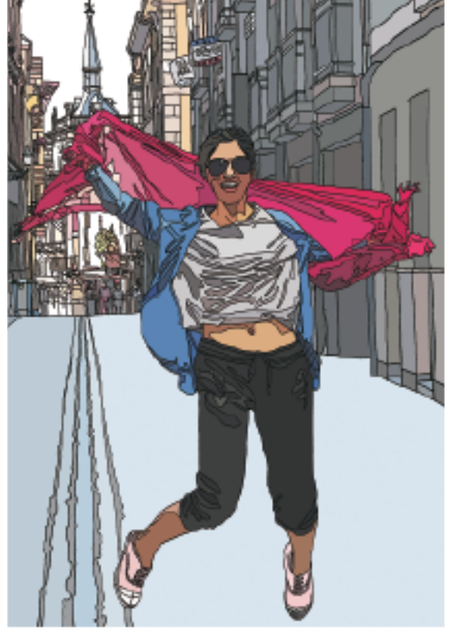
#3

세고비아의 둘째 날은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움직여야 하는 동행 여행은 반드시 중간중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공유하는 일은 스트레스가 엄청난 일이다. 여러 번의 여행으로 얻은 큰 소득 중 하나가 바로 '따로 또 같이'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종일 수도교가 있는 광장의 골목을 돌아다니고 알카사르 성에 다녀올 생각이었다. 다양한 색을 지닌 건물의 사이사이를 지나다가 파란색 건물 앞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내 옆으로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연인이 큰 피자 한 판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상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앉은 남자에게 여자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다양한 표정 변화와 손짓을 더해 열렬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남자의 표정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오랜 골목의 시간





흔들리지 않는 생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늘 행복하고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일 것이다. 그 마음으로 가족에게, 연인에게, 학생에게, 동료나 후배에게 충고나 조언의 말을 꺼내든다. 그 시작이 아름다운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안다. 하지만 듣는 이는 이해하고, 고마워하면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한 타인의 이야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스스로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도 자신을 바라보는 상대의 오해와 편견이 느껴지는 순간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이전에 오롯한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상대의 주관적 판단이 불편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보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면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아끼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다.

'어떤 말이든 하지 않을 때보다 좋은 것은 없다.' 내 대인관계의 원칙 중 하나다.

#4

내가 여행을 떠나며 다짐한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각오의 모습이 뒤를 돌아보며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강력한 나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늘 기대하며 믿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무너져도 다시 쌓고 앞으로 나아가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요새와 같은 멘탈을 만든다면 분명 상처받진 않을지 몰라도 성 안에는 홀로 살아야 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모두와 어울려 살아가는 시장과 같은 삶에서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을 흔들리지 않고 인정하고 스스로 믿는 것임을 알았다. 다리의 끝에서 다시 알카사르를 돌아봤다. 난 어쩌면 정말 마법의 성에 다녀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꿈꾸는 일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모두 이룰 수 있다는 내 신념 앞에 나는 스스로 흔들리며 지금까지 아슬아슬 쓰러지지 않고 견뎌오고 있다. 여행이 내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없애고 있다. 이젠 흔들리며 걸어도 괜찮고, 가다가 주저앉아도 괜찮고, 잘못된 길에 들어 다시 돌아 나와도 괜찮다.

진짜 흔들리지 않는 삶이란 그 모든 것이 나를 통과해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글 · 그림 **배 종 훈**

낮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밤과 주말에는 여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느긋한 외로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출간도서〉 유럽을 그리다,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 행복한 명상카툰 외 다수.

나의 작은 행복,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외협력홍보팀 심기웅 일러스트 키 큰 나무

지호에게

네가 세상에 태어나 일 년이 되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편지를 쓴다.

아직도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게 어색한데 벌써 일 년이라니 너무너무 신기하구나. 네가 태어난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어. 탯줄을 직접 자르고 너를 처음 안아 보던 순간의 긴장과 설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조리원에서 널 두 번째 안아 보았을 때 너는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종일 너의 생각으로 가득하단다. 그리고 널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 세 식구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인생 목표로 다시 설정되었어.

엄마와 함께 너를 집에 데려올 때의 그 긴장과 설렘, 현관문을 열고 네가 들어 있는 바구니를 거실에 내려놓고 바라볼 때의 그 신기하고 이상했던 기분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몇 년간 둘만 살던 집에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기분이었지. 뭐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자는 너의 예쁜 얼굴을 보면 걱정은 바로 사라지고 즐겁고 흥미로운 생각으로 가득해지곤 했어.

네가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처음으로 잡았던 순간, 처음으로 우리 눈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뒤집기에 성공했을 때의 모든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 보행기를 타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우리를 따라다니는 모습, 처음 유모차를 타고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엄청나게 집중해서 밖을 구경하는 모습도 너무 신기했어. 무뚝뚝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나인데도 너와 함께면 감성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듯했단다.

네가 삶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나의 가장 큰 바람은 네가 훌륭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야.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너의 생각과 믿음을 지키는 용기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줄 아는 지혜를 가지기를 바란다. 네가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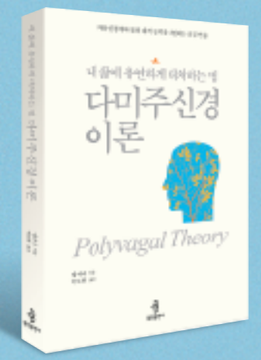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 반항하며 속 썩이는 시기가 오더라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응원하며 함께해 줄게. 그리고 너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가장 가까운 데서 함께하며 너를 지지해 줄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너를 보호하고, 이끌어 줄게. 우리 셋이 함께할 모든 날이 무척 기대되고, 앞으로 몇십 년은 네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야.

나의 소중한 지호야. 너의 모든 날이 행복하고 빛나길 바라며 항상 응원할게. 첫 생일 축하해!

아버지가

내 삶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다미주신경 이론



다미주신경 이론
렙 다나 지음
박도현 옮김

'신경 쓰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마음과 관심이 기울여지다'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불편한 마음 상태'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현재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이지요. 이 외에도 '신경질 부리다(내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다'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신경'이라는 단어는 '마음'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면 마음 상태에 따라 신경이 뾰족해졌다가 몽글몽글해졌다가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실 신경은 마음보다 몸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놀라운 생존 시스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적/자동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서 자율신경계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호흡, 심장박동, 소화작용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가끔 이 신경계가 오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뿐인데, 길이 막혀서 차가 밀릴 뿐인데,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쌓였을 뿐인데, 당장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적절히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고통스러워집니다. 매 순간 너무 긴장하게 되고, 사소한 위협을 크게 받아들이고, 세상을 온통 불안하고 위험한 세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심해지면 불안, 우울, 트라우마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다행인 점은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미주신경 이론(Polyvagal Theory)'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정신의학자 스티븐 포지스 박사가 제창한 '다미주신경 이론'은 자율신경계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신경과학입니다. 신경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알려주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다미주신경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신경계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배부르니까 빨리 소화시켜!"라고 직접 명령할 수는 없지만 자율신경계가 가끔 오작동하더라도 본래의 리듬을 되찾도록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내 삶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다미주신경 이론》은 스티븐 포지스 박사의 제자이자 다미주신경 이론을 정신건강 분야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저자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발한 여러 가지 신경 연습을 담은 책입니다. '이론'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지요. 저자는 말합니다. 몸은 스스로 고통에서 회복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든 그러지 못하든 자연스럽게 회복의 과정을 밟는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신경계가 힘들어할 때, 즉 압도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반복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신경계가 평소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소 자신의 신경계 상태를 알아차리고 조율하는 습관을 들이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기, 접촉하기(사람 · 물건 · 장소), 일상의 빛나는 순간 마주하기(경이로움 · 감사 · 숭고함 · 평온 · 자비) 같은 손쉬운 연습을 통해서 말이지요.

사는 동안 신경 쓸 일 하나 없이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삶이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요. 그것이 인생의 속성이라면, 애써 신경 쓸 일 없기를 바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신경을 잘 다루고 삶에 이로운 방향으로 쓸 수 있는지에 관심을 집중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몸에는 자연적인 치유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평소에 자주 몸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균형감 있고 튼튼한 신경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크고 작은 삶의 풍파에 흔들림 없는 나날을 가꾸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잘 '신경' 쓰며 삽시다!

글 불광미디어

PART 3
DUMC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모바일앱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최첨단 방사선 암치료기기
바이탈빔 도입

입원 문의에서 입원 생활까지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입원전담팀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나눔

진료 일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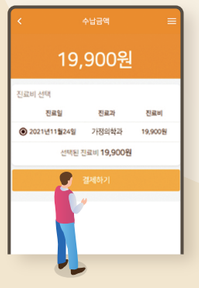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모바일앱

전화 대기 없이 모바일로 편하게 진료예약!
언제 어디서든 검사 결과 조회!
수납 대기줄 없이 빠른 진료비 결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모바일앱으로 병원 이용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내 손안에서 스마트한 병원 생활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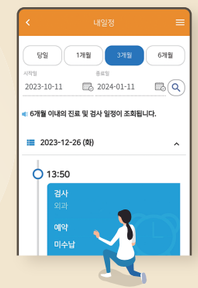
진료 예약

진료과, 담당 의료진, 희망 날짜를
빠르고 편리하게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결제

수납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앱으로 진료비를 바르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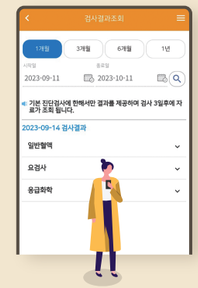


내 일정

진료받을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예약에 대한
변경과 취소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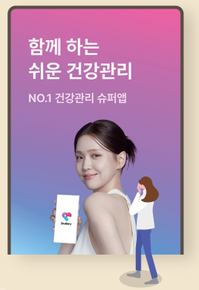
실손보험 청구

진료받은 내역을 선택하면
실손보험청구서류가
보험사로 전송됩니다.



검사결과 조회

병원에서 받은 기본진단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닥터 다이어리

일상생활 속 식단·체중·운동 등의
개인건강정보와 병원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설치 방법

1.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를 실행합니다.
2.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검색합니다.
3. 설치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앱 설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역거점병원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최첨단 방사선 암치료기기
바이탈빔 도입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2023년 11월 치료용 선형가속기인 미국 베리안(VARIAN)사의 '바이탈빔(VitalBEAM 3.0)'을 도입했다. '바이탈빔'은 IGRT 치료법이 가능한 3차원 영상장치, 방사선 수술용 'FFF'빔, 치료 중 환자의 움직임을 고려한 '호흡동조'시스템, 치료위치를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델타카우치' 시스템, 여섯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6DOF' 환자 테이블까지 탑재된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기이다.

특히 이번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바이탈빔과 함께 도입하는 아이덴티파이(IDENTIFY)는 한국에서 세 번째, 영남권에서는 최초로 가동되는 표면유도방사선치료(SGRT) 시스템이다. 첨단 고정밀 카메라기법을 사용하여 환자의 체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치료 자세를 검증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지멘스사의 최신 CT-시뮬레이터인 고심(go-SIM) 장비도 추가로 도입되어 치료준비과정 또한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과감한 투자 결정

기존 방사선치료기기가 노후되고 최신의 방사선 암치료기법들을 적용할 수 없어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던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방사선치료기 도입을 위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현재 나와 있는 방사선치료기 중 가장 우수한 장비 중 하나인 바이탈빔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기기들은 바이탈빔과 아이덴티파이 시스템, CT-시뮬레이터와 방사선 차폐 시설 공사 전체를 포함하여 약 6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다. 방사선치료기기 운영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

정주호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역의료의 중심이라는 기치 아래 경북 유일의 대학병원으로서 첨단 의료 장비를 보유하고 지역민에게 최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책임감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집행했다"며 "치료기 도입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써주셔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환자편의와 치료효과를 극대화한 장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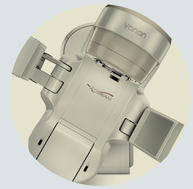
바이탈빔이 도입됨으로써 표면유도방사선치료(SGRT)법을 적용할 수 있어 환자가 방사선 치료기간 동안 자유롭게 몸을 씻을 수 있어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 기존에는 방사선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잉크로 환자의 피부에 선이나 타투로 표식을 하고 2~3주간 지워지지 않게 유지를 해야 했다. 따라서 잘 씻을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SGRT 기법을 적용하면서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할 수도 있다. 앞으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의 암 치료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바이탈빔은 거의 대부분의 고형암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양내과 , 신경외과 등 진료과에서 의뢰하는 다양한 종류의 종양을 치료 목적(근치적, 고식적, 보조적)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

경북권역 암환자에게 희소식

첨단장비의 도입은 경북권역 내 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 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SGRT 기법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북지역 암 치료의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경북 유일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지역민들께 오랫동안 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바이탈빔 도입을 통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지역거점병원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민들은 최첨단 의료기기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도입되고 운영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글 이명혜 기자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최첨단 의료시설과 장비, 생명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암을 치료 목적에 맞게 시행

환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한 더욱 정확하고 정교한 치료 빔

환자가 방사선 치료기간 동안 자유롭게 샤워 가능

3차원 영상장치를 통한 정밀한 방사선 치료

불필요한 환자 피폭을 방지하거나 감소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입원전담팀

환자 만족도
UP!

입원 문의에서 입원 생활까지 맞춤형 서비스

경기도 이남 지역의
유일한 대학한방병원인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에는
독특한 부서가 있다.
바로 2023년 3월 새롭게 구성된
입원전담팀이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9명의 한방전문의 교수, 2명의 재활전문의 교수가 한·양방 협진을 통해 전문화된 한방치료와 체계적인 재활치료로 경기권역에서 확실한 입지를 굳혀왔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 시국 이후로 동국대학교병원의 브랜드 인지도나 신뢰도에 비해 입원으로 유입되는 환자가 많지 않아 병원 운영 측면에서는 안정적 수익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여러 요인을 분석한 끝에 입원 문의에 대한 전문적 상담사 부재 등 내원에서 입원에 이르는 전문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 도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팀이 입원전담팀이다. 그래서 간호팀 3명, 원무팀 2명으로 이루어진 입원전담팀을 구성해 환자 편의를 최상의 가치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김근우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장은 입원전담팀 구성부터 시스템화까지 곳곳에서 현장 지휘하며 환자들의 편리한 이용, 병원의 안정적 수입 증가, 대학 한방병원의 위상 유지를 위한 역량 발휘 등 다각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3월 전담팀을 구성한 후 입원환자는 월평균 입원병상 60%로 시작하여 매월 증가추세를 보이며 월평균 74%를 달성하였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고관절이나 어깨, 무릎, 유방암 등 수술 후 보존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교통사고 후유증 개선을 위한 치료 등 다양하다. 한방침과 뜸치료, 양방 재활치료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입원전담팀을 이끌고 있는 최유정 팀장(수간호사)은 "환자들의 입원 문의에서 입원 생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입원하고 싶은 병원, 소개하고 싶은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며 "병원을 찾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함을 선사하여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이 성남을 넘어 경기권역에서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원전담팀의 스페셜 서비스

첫 번째, 전화 안내 시스템 도입
입원 관련 문의 전화를 했을 때 해당 부서와 연결되어 환자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전문의료진의 맞춤형 응대
입원 문의가 들어왔을 때 20년 이상 간호경력을 가진 간호인력이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응대를 진행한다. 맞춤형 응대 방식으로 입원 의향을 확인하여 알맞은 진료과 진료 교수와 매칭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세 번째, 체계적 관리
전담팀의 구성원별 업무 분담을 통해 초진 입원뿐만 아니라 퇴원 및 재입원 환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네 번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진료과가 확정된 환자는 병동 간호팀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해당 과의 전문적 치료와 한·양방 협진 스케줄 조율 등의 남다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원 후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글 이명혜 기자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개원 18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9월 18일 개원 18주년을 맞아 5층 대강당에서 개원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약을 다짐했다.

개원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큰스님,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등 대내외 귀빈과 교직원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원 18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이사장 공로상, 장기근속상을 비롯해 자랑스러운 DUMC 혁신상, 특별공로상, 동국학술연구상 등 지난 한 해 병원을 위해 헌신한 교직원에 대한 표창장 시상도 진행했다.

'경기북부권역 난임 · 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0월 5일 '경기북부권역 난임 · 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대 내외 귀빈과 교직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경기북부권에서 최초로 운영하게 되는 '경기북부권역 난임 · 우울증 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지난 7월 경기북부권에서 유일하게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경기북부권역 난임 · 우울증 상담센터'가 선정되고 이번에 개소하게 됨에 따라 경기북부 및 일대 수도권의 난임부부 및 임산부, 양육모 및 그 배우자들이 임신출산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캡슐내시경 인공지능과 능동구동의 접목,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종설, 저널 표지 장식

소화기내과 임윤정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중도메인 적용에 대한 종설을 발표하며 학계와 의료 현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교신저자인 임윤정 교수와 일저자인 김민지 전임의는 차세대 인공지능과 능동구동을 결합한 캡슐내시경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전까지 총 37편의 캡슐내시경 관련 논문을 발표해왔다. 또한 국내외에서 교과서를 제작하는 등 캡슐내시경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그 결과물이 저널의 표지에 게재됨으로써 그 중요성을 확인받았다.

캡슐내시경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접근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단과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화기내과
임윤정 교수

소화기내과
김민지 교수

희귀 난치성 통증치료 전자약 공동개발을 위한 MOU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희귀 난치성 통증치료를 위한 생체신호기반 맞춤형 솔루션 디바이스(전자약)개발을 위하여 9월 21일 통증치료 전자약 플랫폼기업 메디버와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대학교병원에서는 임상시험과 임상기반 기술에 대한 역할, 동국대학교에서는 관련디바이스 SW기술개발 및 고도화, 메디버에서는 디바이스 개발 및 제품화를 담당하여 개발하게 된다.

신경제어기술을 활용한 이번 공동연구는 희귀 난치성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중의과학원 왕징병원과 2기 교류협력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의료원은 9월 3일 북경에서 열린 2023년 중국국제 서비스무역박람회에서 중의과학원 왕징병원과 2기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범선 병원장, 임윤정 연구부원장, 이규욱 연구진흥팀장과 왕징병원 당서기, 왕징병원장 등이 참석하여 ▲학생 및 교수 교류 ▲연구성과 및 연구협력 교류 ▲공동연구, 학술포럼, 공동학술지, 강연 및 세미나 실시 ▲기타 교류활동 등에 대한 교류협력을 이어 가기로 했다.

왕징병원과는 2012년 11월 1기 협약을 체결하여 ▲왕징병원 의료인력 연수 ▲제1회 한 · 중 재활의학 포럼 개최 ▲연구교류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2024년 5월에 제2회 한중의료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의료원, 미래병원 추진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프로그램 선보여

동국대학교의료원은 9월 13일 '동국대학교의료원 역량강화세미나(이하 DUMC CES)' 프로그램 발대식을 갖고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동국대학교 만해마을캠퍼스교육원에서 교직원 '역량강화세미나' 프로그램 워크숍을 진행했다.

DUMC CES 제1기 21명의 교육생은 의사직, 행정직, 약무직, 간호직, 기술직 등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이 참여하여, 앞으로 6개월간 의료산업 및 선진 병원 리뷰, 병원 현안 논의 및 개선방안 검토, 독서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상월결사 마음방생 평화순례 의료지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0월 28일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에서 열린 상월결사 마음방생 평화순례에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하여 순례단의 안전과 건강을 살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이번 순례에 채석래 동국대학교의료원장, 지도법사 능지스님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하여 사부대중들과 함께 법계도림부터 고운사 대웅보전까지 왕복 4.5km를 걸으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동참했다.

상월결사는 한국불교 증흥을 발원하고 상월선원 정신을 잇기 위해 2019년 상월선원 위례천막결사에서 시작하여 2021년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2022년 '마음방생 평화순례', 2023년 '인도순례'를 진행했다.

환자경험평가 'Cheer Up 캠페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9월 21일 병원 경영진들이 직접 병동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응원하는 환자경험평가 'Cheer Up 캠페인'을 진행했다.

'Cheer Up 캠페인'은 입원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근무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병동 간호사와 전공의를 응원하기 위해 재미와 당첨의 행운을 담은 룰렛 돌림판으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행사로 자체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범선 병원장은 "환자경험평가를 연초부터 준비하여 11월 평가기간까지 긴 시간 진행되는 만큼 지쳐 있을 직원들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끝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응원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개원 32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10월 20일 1층 강당에서 정주호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30년 근속상(22명), 20년 근속상(6명), 10년 근속상(18명), 공로상(약제팀 배기향), 모범상(15명)에 대한 수상이 있었다. 아울러 경주경찰서장 감사장(응급의학과 최은희) 전달이 있었다.

정주호 병원장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술실과 중환자실 확충, 고가 의료장비 도입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거점 의료중심 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한다면 밝은 미래, 좋은 직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도 병원의 발전과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병원 발전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시행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병원발전기금 모금활동의 일환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각종 페이 및 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기부자의 복잡한 기부 절차를 없애고 쉽고 빠르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 환경을 조성했다.

정주호 병원장은 "기부의 장벽을 낮춰서 기부자들이 보다 손쉽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유일의 대학병원으로서 지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많은 투자 및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료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한 '박하페스티벌' 성료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의료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인 '2023 박하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박하페스티벌'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전국 110개 의료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행사로서 제39차 국제의료질향상연맹 세계총회 서울 개최를 앞두고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기념품과 선물 증정으로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정주호 병원장은 "박하페스티벌을 통해 환자 안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불교문화축제 팔관회 의료지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불교문화축제 팔관회 행사에 의료지원을 다녀왔다.
신라 때부터 이어 온 천년의 불교문화축제 팔관회는 부처님 계를 기본으로 삼아 호국을 기원한 불교전통문화이다. 2000년부터 부산불교연합회 등이 고려팔관회를 재현해 해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운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은 "천년 만에 복원된 팔관회가 부산에서 다시 20년이 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만큼 부산불교연합회는 앞으로도 팔관회의 가치를 전하고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켜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우는 데 힘써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정주호 병원장은 "팔관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구급차와 의료진을 배치하고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기 2567년 금산사 추계성지순례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빛버들회에서는 10월 22일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금산사(조계종 제17교구 본사)로 불기 2567년 추계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혜능스님을 비롯한 150여 명의 교직원 가족들이 참석한 추계성지순례는 금산사에 도착 후 점심공양을 하고 대적광전에서 월강 일원 큰스님의 귀한 법문을 경청했다. 아울러 금산사 문화해설을 듣고 불상 아래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청동대좌(수미좌)를 만지며 소원을 비는 등 금산사의 가을 경치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27주년 개원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10월 11일 개원 27주년을 축하하는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원 기념식에는 김근우 병원장, 지도법사 보경스님 등 약 1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했고, 병원장 인사말, 장기 근속자 표창 및 모범 직원상 시상 순으로 진행했다.
김근우 병원장은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 왔듯이 직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 앞으로도 발전하는 병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동네 사찰 방문 시행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생활불교 실천을 위해 집 주위 가까운 사찰을 찾는 '우리 동네 사찰 방문' 여름 시즌 신행 생활을 진행했다.
자율적으로 진행된 이번 신행 활동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사찰을 동네 산책하듯 쉽게 방문할 수 있어 가족 단위의 사찰 방문이 많았다.
'우리 동네 사찰 방문'에 참여한 직원은 "어린 자녀와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학생 포교 새 이정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연합 템플스테이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청년 대학생 불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 템플스테이를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활기찬 원력과 신심 넘치는 포교를 바탕으로 젊은층 포교에 적극 나서자는 종단과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활동에 힘을 보태고, 미래세대를 향한 전법의 움직임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첫째 날에는 사찰 예절과 발우공양, 저녁예불 등을 통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불교 예절을 익혔고, 둘째 날에는 새벽예불과 나를 깨우는 108배를 체험했다. 또한, 이사장 돈관스님을 수계법사로 개최한 '제1기 대학생 전법 동국대 의학계열 서원수계법회'에서는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오계를 받고 진정한 불제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었다.
이사장 돈관스님은 수계 법어에서 사람 몸 얻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 '인신난득 불법난봉'의 가르침을 설하며 불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실천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제3회 건립기념 동문교류회' 개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은 9월 6일 한의대 학생회(회장 김태연) 주관으로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 상영바이오관 상영홀에서 '제3회 건립기념 동문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일산한의학관 건립을 위해 힘써준 동문 김기욱 학장, 정주화 외래교수회장, 동문회 최유행 회장, 박종웅 수석부회장, 이상택 외래 교수에게 각각 감사장을 수여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일산한의학관 건립기념 동문교류회는 졸업 후 일선 개원가에서 진료하고 있는 선배들과 교수, 학생들이 어우러져 한의대 발전 및 한의계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보시공덕

나눔의 *gil*

재)법보선원에서는 9월 4일 로봇수술센터 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불교계 의료 선진화를 위한 로봇수술 시스템 구축 사업비 40억 원을 지원 약정하고 지금까지 총 29억 원을 기부했다. 이 기금으로 마련한 송담로봇수술센터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스님과 불자환자를 비롯한 모든 환자들에게 최첨단 수술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후유증 부담을 줄이는 치료를 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스님)는 샤카디타 세계대회(6. 23 ~ 6. 30. 8일간) 기간 동안 의료지원으로 행사를 원만하게 회향하게 되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난 9월 18일 차기 비구니회장을 선출하는 전국비구니회 총회에서 발전기금 **1,200만 원**을 전달했다.
기금 전달식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외협력홍보팀 김명숙 팀장은 "비구니 스님들의 소중한 정재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의료포교 도량으로 발전하는 데 귀한 마중물이 될 것이며, 교직원 모두가 약사보살의 화현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건강을 함께하며, 자비의 인술로써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구 동화사 양진암 **정묵스님**이 9월 12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발전기금으로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정묵스님은 "불교종립병원인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지역 유일 대학병원으로서 번창하여 많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자비의료실천 동국대학교병원을 일구는 힘

언제나 동국대학교병원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자	기부액(원)
(재)법보선원	100,000,000
정묵스님	20,000,000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12,000,000
글로벌금융판매㈜	10,000,000
정재면	10,000,000
정용달	10,000,000
박덕선	9,000,000
대한불교원융종	5,000,000
이명남	5,000,000
함월사신도일동	3,000,000
권정애	3,000,000
운문사 사리암	2,000,000
보륜사	2,000,000
능견스님	2,000,000
효철스님	2,000,000
법륜스님	1,500,000
이명규	1,500,000
노영수	1,030,000
동준스님	1,000,000
자광스님	1,000,000
박숙희	1,000,000
박현주	1,000,000
오원택	1,000,000
권오영	1,000,000

기간 : 2023. 8. 1. ~ 2023. 10. 31.

100만원 미만 기부자

강경임	김동하	김정미	도원스님	박지연	송국현	윤민아	이익수	정경윤	진묘스님	현진스님
강명희	김륜하	김정미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박진우	송동현	윤복연	이인오	정경철	진상스님	혜광스님
강석진	김 린	김정배		박채희	송보윤	윤수임	이자경	정기스님	진성스님	혜능스님
강세연	김명숙	김정섭	동성스님	박철근	송은호	윤순선	이재순	정길석	진영숙	혜능스님
강시우	김명숙	김정수	동심스님	박철용	송주의	윤승헌	이재우	정륜스님	차옥련	혜륜스님
강은경	김무종	김정애	대한불교대승종불국사원필	박현강	송창숙	윤승환	이재환	정명환	차행운	혜연스님
강인자	김문식	김정혜	동의보감한의원	박현숙	수근스님	윤정희	이정백	정목스님	채봉희	혜일스님
강지영	김미경	김정훈		박현숙	수환스님	윤춘순	이정숙	정미라	채석래	혜정스님
강혜진	김미경	김종대	동진스님	박현주	신경근	윤형근	이정우	정미선	채은미	혜철스님
경원약국	김미경	김종애	류대안	박회상	신경민	윤혜진	이정하	정보욱	채지원	호 명
고금자	김미선	김지영	류은희	박효빈	신경수	윤효영	이정화	정석화	최경연	홍민재
고운박스	김미숙	김지예	명주스님	박효진	신대규	은정스님	이정희	정수스님	최금례	홍민희
고재영	김미숙	김지원	모종은	배병훈	신복섭	이강현	이종철	정숙희	최동렬	홍병식
고지현	김미운	김 철	묘수스님	배상만	신석재	이경미	이주현	정승택	최동준	홍승욱
고현스님	김미화	김치선	묘희스님	배서영	신성준	이경미	이주현	정승현	최문전	홍유실
고현걸	김민경	김태련	무관스님	배수현	신영애	이경순	이준길	정심스님	최병일	홍은순
곽범석	김민선	김태숙	무구스님	배지현	신윤주	이경환	이지삼	정양임	최보운	홍은정
구남이	김민성	김태영	무이스님	백두진	신은재	이구슬	이지영	정연화	최상돈	홍은희
구병수	김병환	김태은	무진스님	백윤정	신은희	이나현	이지영	정원기	최완우	홍주혜
구복심	김봉희	김필자	무진스님	백정훈	신정용	이도권	이지원	정원스님	최유안	화응스님
구순점	김삼기	김하겸	문병모	범선스님	신정훈	이동욱	이지호	정윤정	최유정	황설희
권경순	김상애	김한성	문장우	법정스님	신학녀	이명순	이진희	정윤준	최은정	황성순
권기업	김선경	김해옥	민성스님	법천스님	신현모	이명희	이진희	정은경	최은희	황은선
권기현	김선순	김해정	밀봉암	법해스님	신희정	이문정	이채원	정은자	최인영	황원진
권나은	김선희	김현서	밀엄스님	변재욱	심미나	이문희	이춘자	정이선	최인주	황윤자
권대식	김성겸	김혜정	박경문	보경스님	쌍계사	이미란	이충진	정일스님	최재원	황재영
권도윤	김성원	김혜진	박계숙	보관스님	안대승	이미수	이해원	정재스님	최정미	황정수
권도화	김세민	김환례	박 관	보관스님	안숙자	이미영	이향년	정재우	최정민	황정희
권두경	김세희	김희경	박대호	보관스님	안영길	이미영	이향미	정재헌	최정숙	흥수스님
권 민	김소원	김희영	박동우	보리수	안인숙	이민자	이향지	정주스님	최정화	
권범선	김솔아	김희진	박동진	보원테크	안종한	이병기	이현복	정주호	최준용	외 다수
권성욱	김수희	남유화	박미형	부동스님	엄희경	이보영	이형경	정진욱	최창익	
권오철	김숙경	남현미	박상희	부안리	여현스님	이상미	이호준	정현주	최현정	
권일진	김숙자	남화연	박서연	삼혜스님	여휘경	이상미	이 황	정혜은	최효식	
권태용	김순례	노경란	박서윤	상오스님	염윤정	이상복	이효정	정화스님	최희숙	
권태형	김순만	노명서	박서현	서로나눔한의원	염주홍	이상현	이희영	정휴스님	최희원	
권희재	김시연	다올케이크	박선순		오미정	이서현	이희지	정희채	탄정스님	
근수스님	김신우	닥터필한의원	박성미	서미경	오민희	이선아	인 공	제민스님	탄하스님	
금곡스님	김연화		박성주	서연희	오석한	이선영	인묵스님	제아람	탄하스님	
금오스님	김영려	대원스님	박성주	서영문	오선경	이선희	인승순	조경애	평일스님	
김가빈	김영미	대한불교대승종불국사원필	박성파	서영진	오성은	이세임	일오스님	조동삼	하경임	
김강림	김영복		박세진	서 준	오진숙	이소영	일진스님	조민주	하정희	
김강태	김영진		박소연	서 찬	오치훈	이소영	일청스님	조성만	하현지	
김경숙	김영진	대한불교조계종봉덕사	박수연	서희주	우경스님	이소정	임경자	조숙현	한광수	
김경순	김영현		박수혁	선경스님	우담스님	이수철	임상기	조승호	한국이씨엠㈜	
김경옥	김예경	대한불교조계종용주사	박순득	선근스님	우덕스님	이승욱	임선희	조아광고		
김경현	김용배		박신애	선도스님	원 각	이승철	임수진	조윤복	한마음한의원	
김경희	김용숙		박애자	성보스님	원각사	이애영	임영택	조은주		
김관희	김용희	대한불교조계종보현선원	박옥석	성원석	원경스님	이양희	임윤정	조현성	한윤희	
김광기	김원교		박완임	성진스님	원명사	이영일	임재범	조혜진	한은숙	
김국현	김은미	대한불교조계종원적정사	박원예	성학스님	원해스님	이영자	임종대	조희군	한재석	
김귀연	김은영		박월희	성현스님	유광옥	이영찬	장경미	조희연	한재필	
김규빈	김은정		박유진	소선기	유미숙	이예린	장대현	종일스님	한정훈	
김근우	김은정	대한불교조계종장안사	박은동	소연스님	유영주	이용찬	장상영	주경희	한주아	
김남의	김은진		박일엽	소행연	유유상	이용필	장순자	주선영	한주형	
김남희	김은희	대한불교조계종지장선원	박재경	손귀득	유재연	이우섭	장유민	주은명	해덕스님	
김단혜	김을생		박재영	손명희	유정임	이원찬	장정화	주혜스님	행이스님	
김덕희	김의정		박재희	손민표	유주형	이유나	장충섭	지광스님	허병철	
김도연	김이수	대한불교조계종천태종대광사	박정애	손주연	유창국	이윤미	장태영	지묵스님	허 설	
김도연	김익환		박정화	손주영	유형주	이은자	장호근	지우스님	허은경	
김도연	김인영	덕업스님	박종학	손효정	유효근	이은정	재오스님	지일스님	현담스님	
김도현	김재은	도명스님	박준재	손효진	윤금섭	이은주	전순영	지휴스님	현담스님	
김동일	김전충	도민스님	박중희	손희진	윤동규	이은주	전용화	진경애	현재호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취선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일반 ☐ 불교계 ☐ 교직원 ☐ 기업/단체 ☐ 기타 ( )
☐ 동문 (입학년도 : 대학(원) : 전공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현물기부(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 )원씩 / 총( )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병원 · 대학) 발전기금 ☐ 지정기금 (지정)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병 원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일산병원(증축기금) ▶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778001-00-059986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한의원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동 국 대 학 교 분 당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자동이체(CMS) 출금일 : 매월( ) ☐ 1일 ☐ 18일 ☐ 25일 (총 원)
예금주 : ☐ 기부자와 같음 은행명 : 계좌번호 :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수집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보유기간 :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 후원자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상기와 같이(효성에프엠에스㈜), 국세청(기부금 세제혜택 근거자료)동의합니다.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이메일 ▶hongbo@dumc.or.kr / 팩스 ▶031·961·9239
• **문 의** :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9000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2. 9. 1. ~ 2024. 8. 31.

고양일산우체국
제269호

gil good in life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이곳에 풀칠하세요.

절취선

나눔의 첫걸음,
동심 1·3·5와
함께 해주세요!

동심 1·3·5와 함께

동심 1·3·5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동국대학교병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소액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동국대학교병원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同心 1 매월 1만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실천합니다!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깊은 뜻과 넓은 마음을 새기어 생명 존중과 자비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

東心 3 매월 3만원으로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기부자님의 나눔은 빛나는 동녘의 태양처럼 밝은 등불이 되어 건강하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動心 5 매월 5만원으로 새롭게 성장해 갑니다!

기부자님의 관심과 격려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동국대학교병원의 성장 동력입니다.

-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진료, 연구, 교육, 저소득층 환자 지원 등 후원자가 지정하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게 됩니다.
- 후원은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며 기부하신 후원금·자산·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월 정기기부 외에도 일시납으로 기부액에 상관없이 동심 1·3·5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내용을 명패로 제작·등재하여 그 숭고한 뜻을 기념하며 진료비 감면, 전담 직원 안내 서비스 및 검진권 제공 등 맞춤형 진료 및 편의를 제공합니다. (후원금별 상이)

후원 기관	후원 문의	후원 계좌	예금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tel 031. 961. 9000	국민은행 778037-00-000011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증축기금)	tel 031. 961. 9000	국민은행 778037-00-000347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tel 031. 961. 9000	국민은행 778001-00-059986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경주병원·한의원	tel 054. 770. 8130	우리은행 1005-202-076965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tel 031. 710. 3712	국민은행 368137-01-001162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유튜브에서
동국대학교의료원을
검색하세요.

동국대학교병원은
생명존중과 자비의료실천으로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